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유 안 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동양육 풍습의 문화적 독특성과 유사성,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우리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를 비교문화의 준거자료로 사용하여 한국, 홍콩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아동양육 풍속을 문화간, 세대간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총 650명으로 2세 반 미만의 첫 자녀를 둔 한국의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는 각각 118명, 미국은 각각 105명, 홍콩은 어머니 세대 126명, 할머니 세대 78명이었다. 연구도구는 Yes/No 응답의 폐쇄형과 多選의 선답형 질문지를 이용했으며 측정도구는 한국, 홍콩, 미국의 아동학 관련 학자의 논의와 선행연구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료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Crosstabs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출생의례 중 출산소식을 알리는 방법은 한국, 홍콩, 미국의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산후조리시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 산후조리 음식, 출산 후 외인출입 제한은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신생아 이름짓기와 관련하여 작명과, 아명 또는 애칭 사용은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아기행사와 관련하여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첫똥선물과 관련하여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첫똥 의의와 관련하여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의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는 홍콩 및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독특한 양육풍속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의 할머니-어머니 세대간 전이는 홍콩과 미국에 비해, 특히 미국에 비해 내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교문화적 연구가 부진한 학문적 현실에서,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전통적 아동양육 풍속의 문화적 고유성 또는 문화성 독특성을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동양육 풍속을 준거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홍콩이나 미국의 아동양육 풍속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